

전남 디지털 혁신 인재 양성의 요람 광양 'ICT이노베이션스퀘어' 개관

2023년까지 79억 투입 1000명 양성 ... AI·블록체인 개발 위한 지역거점 인프라 제공

전남도 디지털 뉴딜 제1호 사업인 '전남ICT이노베이션스퀘어'가 최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해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로 선정된 '지역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사업'은 한국판 뉴딜 핵심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 혁신인재 양성사업이다.

2023년까지 모두 79억원(국비 55억원)을 투입해 SW 개발자 지원을 위한 지역거점 인프라를 구축하고, AI와 블록체인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광양커뮤니티센터에 구축(1084㎡)된 전남ICT이노베이션스퀘어는 1층과 2층 사이에 교육장을 마련하고 2층은 회의·강의를 위한 프로젝트실, ICT콤플렉스 등의 시설로 구성됐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로 전남도민이면 누구나 전남ICT이노베이션스퀘어 교육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수료생은 취업 연계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911명이 비대면으로 AI와 블록체인 교육을 수료했으며, 센터 개소와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내년부터 온·오프라



지난 14일 김경호 광양시 부시장이 '전남ICT이노베이션스퀘어'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인 교육을 병행한다. 김경호 광양시 부시장은 개소식에서 "광양시가 디지털 혁신 도시의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4차 산업분야 인프라 구축과 SW 전문인재 양성이 필수"

라며 "전남ICT이노베이션스퀘어 개소가 도내 ICT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일자리를 꿈꾸는 청년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고흥군, 드론 상업화 실증지원센터 착공

164억 투입... '5G 기반 스마트 영농 실증·확산' 핵심 사업

고흥군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5G기반 드론활용 스마트 영농 실증·확산사업'의 핵심사업인 드론상업화실증지원센터 건립을 시작했다.

5G기반 드론활용 스마트 영농 실증·확산사업은 전남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고흥 항공센터 일원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국비 80억원 등 총 164억원을 투입해 5G통신을 기반으로 무인 드론운용 시스템 설치와 드론 성능평가 장비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가운데 드론상업화 실증지원센터는 건축 연면적 1180㎡ 규모로 외풍조성형 시험기, 연수환경 챔버, 드론 GPS 및 센서 검증 시뮬레이터, 카본용 3D프린터 구축 공간을 갖춘다. 5G 주파수 기반 드

론의 설계, 시험평가, 제조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공간으로 손색이 없을 전망이다.

또 드론상업화 실증지원센터 구축과 연계사업으로 올해 8월에 준공된 고흥 드론센터 내 드론 통합 관제시스템, 3D·다체널 빅데이터 시스템, 드론용 라이다, 초분광 카메라, 열영상 카메라, 다중스펙트럼 카메라, 무인충전 스테이션을 구축하게 된다.

전국 유일의 드론 5G 전용망도 내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벼, 마늘, 양파, 유자 등 농산물 재배지에서 5G 통신 기반 드론이 실시간으로 수집한 영농데이터와 영상처리정보를 저장 및 가공처리 할 수 있는 '영농형 빅데이터 시스템'이 가능하게 된다.

5G 기반 드론을 활용한 '사계절 스마트 영농 플



고흥 드론상업화실증지원센터 조감도.

랫폼 구축'의 첫 단추가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고흥군 관계자는 "5G 기반 드론 제조 실증기반이 구축되면 고흥 드론센터 등 기존 드론산업 인프라와 함께 시너지 효과로 고흥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드론산업 중심지로 우뚝 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고흥=주작중 기자 gju@kwangju.co.kr

순천시, 온실가스 감축 7097세대에 7500만원 인센티브

순천시가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중 올해 상반기 온실가스 배출량을 5% 이상 감축한 7097세대에 현금·상품권·그린카드 포인트로 7500여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상업용 건물,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의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면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다. 인센티브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탄소포인트를 부여하고 절감비율에 따라 연간 최대 10

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희망하는 세대 또는 아파트 단지, 상업시설 등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직접 가입하거나 순천시 생태환경과에 신청하면 연중 참여 가능하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사진으로 보는 1990년대 구례 5일시장

구례군 '꿈속같은 시절' 출간

구례군이 1990년대 구례 5일시장 풍경을 담은 사진집 '꿈속같은 시절, 그날의 풍경' (사진)을 출간했다.

사진집은 보존 가치가 있는 구례 고유의 사진 자료와 증언을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5개월여간 제작했다.

사진집에는 구례군청에서 32년동안 근무하며 사진 자료를 꾸준히 기록해왔던 김인호 홍보팀장의 흑백사진 81매와 칼라사진 15매가 수록됐다.

특히 1990년대 구례 5일시장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김정자(81)씨의 구술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을 곁들여 구성했다.

사진집은 언론기관·문화단체·교육기관 등에 배부돼 군 홍보에 활용할 예정이다.

김 팀장은 "1990년대 구례 5일시장의 모습을



흑백필름과 칼라슬라이드 필름으로 기록해왔기에 이번 사진집 작업이 가능했다"며 "이번에는 전통시장에 집중했지만 사진집 출간을 계기로 그동안 기록한 아름답고 소중한 우리 구례를 사진과 함께 충실히 남기는 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팀장은 193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구례의 옛사진을 수집한 구례향토사진집을 비롯해 '하늘에서 바라본 구례', '구례를 걷다'를 기획 발행했다. 1970-80년대 구례를 기록 정리한 '과거를 보러 가는 길' 사진집도 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여수~거문 항로 여객선 사업자 공모 '빈손'

해수청 "기존 선사 추가투입 등 운항방식 변경 협의할 것"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여수에서 출발하는 여수~거문항로 여객선 사업자 공모에 나섰으나 참여 업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여수~거문항로 여객선 신규 사업자를 모집했으나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여수~거문 항로에는 여수에서 오전에 출항하는 선사와 거문도에서 오전에 출항하는 선사 등 2개가 운항 중이었다.

여수에서 출발해 거문도로 가는 여객선사가 지난 2월 운항을 시작했으나 7월 운항을 중단했다.

해수청은 여수 출발 여객선이 운항을 중단하면서 거문도와 손죽도, 서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 공모에 나섰다.

여수~거문 항로는 2013년 이전까지는 연간

20만명 이상 이용했으나 2019년 14만명,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은 8만6000명까지 줄어들었다.

연간 35만명 정도 이 항로를 이용해야 여객선사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실제 이용객은 이보다 적어 선사들이 여객선 투입을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

해수청은 재공모를 하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항지를 추가로 개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거문도 등 이용객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신규사업자를 공모했지만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여수출발 여객선이 운항할 수 있도록 기존 선사의 여객선 추가 투입 및 운항방식 변경 등을 관계기관 및 선사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곡성군, 다문화가족 한마당

곡성군이 최근 섬진강가차마를 로즈홀에서 다문화가족 어울림마당을 개최했다.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탓에 현장에는 9개 팀 50명의 공연 인원만 참여하고, 다문화가족들은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보며 채팅으로 행사에 참여했다.

행사는 센터 프로그램 참여자 공연, 이중언어 수업 성과발표회 등을 통해 다양한 다문화 가정의 이야기를 전했다. 유튜브 방송 실시간 채팅에는 200여명의 다문화가족이 참여해 응원을 보냈다.

곡성군 가족센터는 지역 10개국 219명의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kwangju.co.kr

보성군 '축산시책 평가' 대상

보성군이 전남도 주관 '2021년 축산시책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전남도는 축산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창의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해마다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해 동안의 축산시책 전반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보성군은 ▲축산정책분야-자체예산확보(32억), 축사현대화 집행률(100%), 한우 등록률 우수 ▲동물복지분야-녹색축산농장 선정지정(18호), 도비 집행률(80%), 유기동물 보호관리 우수 ▲축산경영분야-조사료 재배 및 사업비(100%) 조기 집행 한우경진대회 개최 ▲축산자원분야-깨끗한 농장 지정 선정 목표 달성, 약취저감사업 조기 완료 등 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